

allure

Beauty & Style

[얼루어 코리아]

STAR!

하지원의 치명적인 매력

눈썹의 품격
장마에도 볼륨 헤어
휴가지의 완벽한 뷰티 케어

튼살도 치료가 되나요?
에디터의 은밀한
확성 체험기

SUMMER NOTE

휴가지의 완벽한 뷰티 케어
완벽한 수영복을 찾아서
여름 액세서리 짝짓기

패션필름 전성시대
영화 속 휴양지 룩



JULY 2014 5500원
WWW.ALLUREKOREA.COM

ISSN 1599-9378



9 771599 937008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인 <Over The Layers>전



아틀리에에서 포착한 홍승혜 작가



<유기적 기하학>전에 걸린 작품들

공간을 증식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실현실에 세표를 증식시키는 생명공학자가 있다면 아틀리에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는 공간을 증식시키는 예술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홍승혜다. 1997년부터 지속해온 픽셀을 기본단위로 하여 탄생과 증식을 반복하는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 작업을 총망라하는 그녀의 개인전이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아직 전시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만큼은 확실할 수 있었다. 그녀의 유기적 기하학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Reminiscence>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의 회고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기적 기하학'을 주제로 20년 가까이 작업해오고 있다. 이쯤에서 과거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싶었다.

기존 전시와 다른 점을 꼽아본다면?

'유기적 기하학'이 낳은 과거의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들을 평면, 입체, 영상 작업으로 전환시킨 방법론을 총동원해 또 다른 변주를 보여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전시 작업은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무채색으로 연출된다. 기존의 전시들이 매번 하나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개했다면 이번 전시는 그 모드를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할 수 있다.

컴퓨터 작업은 평정한 직관을 필요로 한다. 그 감을 잃지 않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작업의 속도감과 직관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 피치를 올리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픽셀을 증식시키는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으며, 픽셀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때로는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외부 세계로부터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지 못한 내게 픽셀은 백지 위에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는 재료였다. 그 걸과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꽃만큼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작업을 위해 구글의 스케치업과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당신의 작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이미지에 움직임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도구이다. 움직임은 감정의 행보를 더욱 명료하게 보여주고, 평면 작업이 갖지 못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스케치업은 아직 배우고 있다. 가구나 인테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형태에 사족을 더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객에게 예술작품으로 봐주길 강요한다는 느낌이 든다.

손이 아닌 머리로 하는 작업임에도 당신의 작업은 '뽀뽀'하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점에 동의하나?

그런 평가는 내가 기대하던 바깥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컴퓨터 작업이라 머리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슴을 활짝 열어 쓴다.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그리는 회화 작업이 그리울 때도 있을 것 같다. 기묘 드로잉 작업도 하는지 궁금하다.

회화 작업이 좋아서 미술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림긴 하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작업이다. 모든 것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

픽셀이라는 파편적 요소는 결국 우주를 만들 수 있을까? 우주를 바라보는 마음은 있지만 우주를 만들겠다는 야심은 없다. 우주의 일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각인 건 확실해 보인다. 당신에게 예술은 여전히 공간에 대한 최적인 개입을 의미하나? 공간에 대한 최적인 개입에서 시군에 대한 최적인 개입으로 확장되고 있다.

결국, 당신의 예술이 지향하는 것은?

생각의 여지를 남기는 예술이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여지는 희망과 기대의 공간이다. (c) 에디터 | 조소영

NEW EXHIBITION



<Curious Kitchen>전
크리에이티브 그룹 배리핑크의 전시가 열린다. 도시자연과 음식문화에 대한 실험을 지속해온 배리핑크는 음식과 음식을 둘러싼 이야기를 기린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흥미로운 방식으로 돌아온다. 7월 5일부터는 토크 세미나도 만날 수 있다. 7월 13일까지, 구슬모양극장



<자동차 여관전>
중국의 떠오르는 작가, 연평의 국내 첫 개인전이다. 그는 독특한 회화적 언어로 중국 내 손꼽히는 젊은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독과 갈등, 내면 세계의 모순을 그만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현실화했다. 7월 13일까지, 아라리오갤러리서울



<구경꾼들>전
작가의 시선이 담긴 작품 속 이야기가 관객과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전시다. 구지운, 류노아, 오용석, 유현경 등 7명의 작가가 개인의 경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거나 신화, 영화를 재구성한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7월 5일까지, 두산갤러리서울



<Incredible>전
'사실이 보여주는 진실보다 감정이 보여주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 필립 파커스의 이 말은 리경이라는 작가의 사진에서 특히 공감할 수 있다. 사진은 모두 비밀스러운 것이라 믿는 작가가 세계를 떠돌며 기록한 찰나의 순간을 흑백 사진으로 담았다. 7월 15일까지, 갤러리나우



<만지막 일사>전
사회가 지닌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김기리. 그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겪는 고통과 대립을 중심으로 우리의 현재를 통찰한다. 특히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영상 없는 비디오로 연출해 시간에 지배된 우리를 자극한다. 7월 5일까지, 페리자갤러리